

문화도시 수원

제 14 호



좌담

직원이 바라보는 문화도시 수원
함께 만들어 가는,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도시 수원

머물수록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태도, 도시>
광고 생태문화 교육 프로그램
'광고 같이공간'

전문가 칼럼

어린이 해방 선언과 어린이 창작 시집
발간

문화도시 수원 8월 이모저모

수문장x노보텔 수원 팝업스토어
수원학교 100년 아카이빙 프로젝트
문화도시 동행공간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 가는,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도시 수원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수원문화재단은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시도와 도전을 이어 나갔다. 문화도시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인 수원문화재단 직원을 만나 ‘3인 3색’ 그들만의 해답을 나눠보았다.



참석자

장지은(문화도시센터 정책기획팀 대리)

윤승기(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대리)

최명화(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팀 대리)

수원시는 2021년 12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지향한다. 시민중심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윤승기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도시주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하나인 인문도시주간을 통해 문화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수원의 다양한 시민주체들과 교류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명화 안녕하세요. 저는 ‘권역별 중심 거점 및 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0만 수원 시민의 수는 광역 급 대도시에 해당하기에, 이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중심거점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5대 권역은 서수원, 북수원, 광고, 권선&영통, 수원화성이고, 저는 각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지은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도시센터 정책 기획팀에서 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홈페이지, SNS 운영기획부터 굿즈 제작까지, 홍보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이 소식지를 만들어 문화도시 수원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궁금합니다.

최명화 저는 ‘권역별 중심 거점 및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공간 네트워킹 역할인데, 공간을 거점으로 시민, 예술가, 지역 문화예술 공간 등을 모으는 역할입니다. 거점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역할입니다. 각 권역별 특색을

발굴하여 이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데, 실제로 23년 상반기 광고에서 진행했던 숲해설 & 힐링요가 프로그램은 180명이 사전 신청하셨어요. ‘여가와 치유’ 역할로서의 광고호수공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장지은 저는 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공모 사업이나 행사 프로그램 진행 시 더 많은 수원 시민과 향유하고자 해요. 그래서 항상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홍보하죠. 그리고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옥외광고도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 담당 선생님들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시는데 그에 비해 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로서 수원이 어떻게 보일까?’에 초점을 맞춰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수원이 예전부터 화성, 정조, 효의 도시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대표적인 문화도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125만 수원시 시민 모두가 ‘더 가까이,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윤승기 _____ 시민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문도시주간 ‘N개의 실행그룹’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N개의 실행그룹은 현재 우리 앞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시민민주주의 같은 큰 주제부터 동네책방, 마을탐색, 책과 시, 영화 등 문화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다양한 시민 그룹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수원 시민 중심 민주주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이러한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인문도시로서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원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지은 _____ 수원 화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대문이 성곽길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산책으로도 관광으로도 경관이 좋아요.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문화유산 외에도 수원은 도서관과 공원이 많은 도시예요. 두 곳 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문화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수원’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을 많은 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어요.

윤승기 _____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행차인 정조대왕 능행차 라고 생각합니다. 행렬이 화려하고 다양한 것도 특색 있는 점이지만 기획과정을 관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렬이나 예술로 정조가 꿈꾸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점이 수원만의 문화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최명화 _____ 문화자원 중 최고는 인적자원 아닐까요? 그래서 ‘현재 수원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인적 자원’을 뽑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실, 저도 고향은 부산이기에 부산의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이 유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는 도시는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도 수원에서 하는 예술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수원만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자원이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계시는지? 혹은 소감을 알려주세요.

최명화 _____ 가끔 ‘문화예술 너머의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더 도의적 차원일 텐데, 문화도시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이자 문화

재단에 소속된 직원이기에는 좀 더 공익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성을 찾고자 합니다.

윤승기 _____ 기획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 행사 및 프로그램 관람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힘든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하시는 만큼 제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수원 시민
중심 민주주의를 통해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가 형성될 것

장지은 _____ 솔직하게 말하면 부딪힘이 제일 커요.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수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나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삶에서 누리는 문화자원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의 ‘수원’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을 많은 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어요.

다른 중소도시와 차별화된 수원만의 문화도시의 정체성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최명화 _____ 세련미를 뽑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어렸을 적 가졌던 수도권 도시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뭔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는 늘 현대적이고 세련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소도시와 달리 광역급 대도시에 해당하는 수원은 세련될 것 같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홍보물, 아니면 운영 과정 자체를 제약 없이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수원만의 차별성으로 뽑히길 바랍니다.

윤승기 _____ 다양한 공간(동행공간)을 지원하고 그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의 거점공간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각종 활동이라던가 문화예술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많은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데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지은 _____ 문화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수원 문화재단의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공연장(SK아트리움)부터 복합문화공간(111CM), 도서관(어린이도서관 3개소), 수원호스텔,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야행, 능행차, 세계유산 축전 등)까지 문화도시 이름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많은

행사와 축제, 장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에서는 수문장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수원은 학교를 통해 문화기획자 양성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문화도시를 구축해 가는 인프라가 되는거죠!

문화도시 지정 후 여러 문화사업들을 통해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수원 시민과 함께 구성하는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을까요?

장지은 _____ 거버넌스 관련 사업인데요. 크게 기관단체협의회와 시민협의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관단체협의회는 14개 기관이 문화도시 수원과 협약을 맺고 있어요. 지난 6월에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황구지천 정화 작업을 하며 하천 생물에 대해 살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인근 주민분들께서 그동안 꾸준히 정화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지킨다는 건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행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시민협의체예요. 시민협의체는 올해 조금특별한 방식으로 선발되었는데요. 보통 시민협의체를 뽑는다는 공지 > 시민 신청 > 선정과 같은 절차를 거친 뒤 활동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시민협의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먼저 진행한 뒤 신청을 받았어요. 사전활동 후 신청을 통해 교육 2회차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하니 진정성 있는 분들만 남게 되었고 이후 정기 회의를 하며 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윤승기 _____ 인문도시주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수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생활문화에 가까운 문화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최명화 _____ 저는 특정 사업보다는 ‘결국 사람이 구나’를 느꼈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 기획은 문화도시 수원에서 담당하지만, 사람을 모집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공간 사용에 흔쾌히 협조해 주신 광고 호수공원팀에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공익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태도도시

2023 문화도시 조성사업

머물수록

로컬콘텐츠 지원사업

도시의 새로운 물결을 탐구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5주간의 여정

로컬콘텐츠 지원사업 <태도, 도시> 교육이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행궁동 어울림센터와 팔딱산에서 펼쳐졌다.

로컬콘텐츠 지원사업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한 문화도시 사업 중 하나이다. '로컬'과 '콘텐츠'라는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생활 반경 안에 자리한 상업 환경 속에서 지역 자원, 문화적인 특징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태도, 도시> 교육은 창작자들이 지역의 자원과 문화적 특징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DAY 1
07.12(수)

로컬브랜드의 성장
김혁주(비로컬)

- 국내 로컬 브랜드 성장 사례
- 로컬 브랜드의 성장과 지역의 연관성

DAY 2
07.19(수)

로컬 혁신 기획
전충훈(전 행안부 혁신추진과장)

- 현재 사회 혁신 진행 상황
- 로컬에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의 역할

DAY 3
07.26(수)

로컬 재생(개발) 모델, 울산을 중심으로
이철호(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 민간 주도의 로컬 재생
- 로컬에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의 역할

DAY 4
08.02(수)

로컬 브랜딩
천인우(피큐알)

- 로컬 브랜딩 경험
- 개인의 성장과 브랜드 관점의 성장

작장
박승현(공존공간)

DAY 5
08.09(수)

태도, 도시 - 콜로키움
안영노(문화기획자)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 발제 진행
- 로컬과 지역 생태계에 관해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토론 진행

우리가 사는 도시가 조금은 다른 도시로 가는 여정 우리는 어떤 관점 태도로 도시, 로컬을 바라봐야 할까요?

<태도, 도시> 교육은 지역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하며 새로운 관점과 태도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토론하는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의 일환이다. 문화도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은 로컬을 움직이는 시민과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콘텐츠, 지역재생에 관심 있는 관계자, 이들이 만나 여여가는 자유로운 대화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의 로컬 문화를 형성하는 주제를 정하고, 여러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해당 주제에 관한 현장사례 공유 및 로컬과 지역 생태계 관련 콜로키움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들은 도시, 로컬을 위한 로컬 콘텐츠 개발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하며,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로컬과 지역 생태계를 구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대도시 수원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와 다른 로컬들과 접속하고 동행하며 함께하는 문화적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에서 수원의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광고 생태문화 교육 프로그램

생태와 문화의 지속 가능한 공존 광고 같이공간



숲과 동식물, 풍부한 생태환경을 간직한 광고호수공원. 그곳에서 광고 생활권역의 문화거점 공간인 '같이공간'이 시작되고 있다. 2022년 수원화성·북수원·서수원 3개 권역 특화사업에서 나아간 것으로, 2023년 광고·권선 권역을 추가한 5대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광고 생활권역은 생태문화 기반의 특화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고호수공원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가 함께 결합한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같이공간' 광고만의 시민 중심의 자생적 커뮤니티 기반 마련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마스테! 숲을 걸어요! '같이공간' 광고



생태문화 기반의 광고 생태문화 교육 프로그램

나마스테! 푸른 잔디 위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느끼며 자신만의 호흡과 동작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사람들. 다른 한편에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숲 해설가 선생님을 따라 숲을 누비며 생태환경을 탐험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도심 속 힐링은 물론 사람을 건강하게 키우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광고호수공원만의 이색풍경이다.

풍부한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광고호수공원은 권역별 중심거점 특화사업인 '같이공간'의 광고 생활권역 거점 공간이다. 문화도시 수원은 광역급 대도시의 문화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문화거점 공간인 '같이공간'을 지정했다. 현재 5대 권역은 서수원, 북수원, 광고, 권선&영통, 수원화성으로 구성, 5대 생활구역을 완성했다.

권역별 중심거점 특화사업은 '같이공간' 내에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3년 지정된 광고 생활권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명소(광고호수공원)를 '같이공간'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는 광고 생활권역 내 '같이공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생활권역별 중심

광고 같이공간 숲 해설 프로그램 '숲 속을 걸어요'



거점 '같이공간'과 연중 특화사업이 기획 및 운영된다. 현재 풍부한 생태자원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광고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한 <숲 해설>과 <힐링 요가> 프로그램을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운영, 뜨거운 호응 속에 종료됐다. <숲 해설>프로그램인 '숲속을 걸어요'는 광고호수공원의 대표적인 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숲 해설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광고호수공원을 걸으며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부채에 직접 생태 그림을 그리는 교육도 추가되어 체험과 생태 교육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이 선사한 풍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호기심은 금세 진지한 눈빛으로 변하며 아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특화 프로그램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말 아침 야외에서 진행된 <힐링 요가>는 '나마스테, 광고'라는 타이틀로 문화도시센터 지역 문화팀이 기획한 '광고 같이공간 숲&힐링 프로그램'이다. <힐링 요가>는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전 회차가 조기 마감되었다.



전문 요가 강사에게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요가 자세를 배우으로써,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 특별한 힐링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인 만큼 참가자들은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인생 사진을 추억으로 남겼다.

지속 가능한 생태와 문화의 결합 앞서가는 광고 같이공간

문화도시 수원은 수원의 문화, 도시, 시민의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광고

생활권에 시민 중심의 '같이공간'을 마련하고, 광고호수공원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중심의 자생적 커뮤니티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 사업 연계 의제활동 장소 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광고권역 동행공간 및 시민리더 지원프로그램을 지난 5월에서 7월 석 달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제 활동 기획과 모니터링, 사업 제안 등 문화도시 사업 연계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광고 생활권역의 라이프스타일을 철저히 분석, 이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곧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국제아동도서&콘텐츠페스타 연계 축제로도 만나 볼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 수원 누리집(www.sw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생활권에 시민 중심의 '같이공간'을 마련하고, 광고호수공원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실험적인 프로그램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속 가능한 생태와 문화가 결합한 같이공간 광고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광고 같이공간 힐링 요가 '나마스테, 광고'



어린이 해방 선언과 어린이 창작 시집 발간

수원문화재단은 어린이들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 받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 시집 발간>을 위한 어린이 창작 시를 공모 합니다. 선정된 시는 인문도시주간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어린이 창작시집>에 수록됩니다. 수원만의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기념, 어린이 창작시집 발간을 통해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해방 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수원 북수동에 갈 때마다 이곳에서 출생한 최순애가 어린이 인권운동이나 어린이 문화운동이 아니었으면 문학적 재능을 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올해는 1923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과 어린이 운동가들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해방 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 선언문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어린이 권리 선언’보다 1년이 앞선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이를 발견한 시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를 아직 사람이 되기 전 작은 짐승이나 소유물로 인식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어른처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시작한 것은 동학이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라고 했다. 1920년대에 어린이 운동을 이끌었던 방정환, 김기전 등은 동학 사상을 이어받은 천도교인이었다. 즉 어린이 해방 정신은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간 해방 선언이었다.

어른이 부리라면 어린이는 씩입니다. 부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씩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부리가 원작상 그 씩을 위해야 그 나무는 썬쳐 나갈 것입니다. (『방정환 말꽃모음』에서)

‘어린이 해방 선언’ 등 어린이 인권운동과 더불어 어린이 문화 운동도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어린이 잡지의 창간이 활발했다. 1923년에 『어린이』, 『신소년』, 『새별』, 1925년에 『선명』, 『새벗』, 1926년에 『소년계』, 『아동세계』, 『아이생활』, 『별나라』 등이 창간되었다. 어린이 잡지의 등장으로 어린이들은 단순히 독자일뿐 아니라 투고와 공모를 통해 창작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어린이』에 최영애의 「꼬부랑 할머니」, 최순애의 「오빠생각」, 이원수의 「고향의 봄」이 실렸던 것이다. 최순애, 최영애 자매는 수원 출신이고 이원수는 최순애와 결혼을 했으니 작품으로 인연을 맺어

평생을 동고동락했다. 어린이들이 창작한 동요는 노래가 되어 지금까지 즐겨 불리고 있다.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것,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는 과제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것, 100년 전에 이미 공표된 것이지만 현실은 어떨까? 얼마 전 전교조 서울지부가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맞아 서울 내 초등학교 100학급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존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비하하는 ‘잼민이’, ‘주린이’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하루 2시간은 자유시간을 달라, 하루에 학원은 최대 3개씩만 다니게 해달라는 바람도 있었다.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의 불안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어린이도 있었다.

비록 서울지역 어린이들에 한정된 설문조사였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까? 우리나라의 어린이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 학대에 관한 기사가 자주 뉴스에 오르내린다. ‘어린이 해방 선언’ 중에서 ‘윤리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완전한 인격적 예우’, ‘어린이를 위한 사설’ 등은 10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수원만의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기념

어린이 창작시집 발간

수원에서 이런저런 문화운동을 하면서 수원의 어린이들과 수업을 함께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팬데믹 이전에 어린이도서관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한, 어린이들이 동시를 짓고 직접 곡을 붙이는 프로그램이었다. 창작시 수업을 진행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바람이 전해주는 말을 귀기울여 듣기도 하고 나무의 시간도 읽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모두 어렸을 적에는 시인이었다는 걸 깨달을 정도로 어린이들의 작품은 기발했고 상상력은 뛰어났으며 표현력은 톡톡 튀었다. 계기가 주어진다면 어린이들은 얼마든지 문학인이 되고 예술가가 될 수 있다.

2022년에 문화도시 사업 중 ‘인문도시주간’ 사업에 합류하게 되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수원시민 창작시집을 발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시민들의 호응과 작품 수준이 높았다. 수원시민 창작시집

전문가 칼럼

글 박설희

시인. 방화수류정을 비롯한 수원화성에 반해 수원에 정착한 후 30년 가까이 살고 있다. 2003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쪽문으로 드나드는 구름』, 『꽃은 바퀴다』, 『가슴을 재다』, 산문집 『툼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 등이 있다.



『나폴거리는 찬란한 것들』은 시민들의 높은 문화적 소양과 수준을 가늠하게 했고 작품이 선정된 시민들은 잊었던 꿈을, 문학에의 향수를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졌다. 출간 기념회 겸 문학의 밤에서 자작시를 낭독하고 창작 동기 등을 나눈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여러 자리에서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감격과 보람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나폴거리는 찬란한 것들』이 발간된 후, 나는 다음 번엔 어린이 창작시집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다. 제2의 최순애, 제3의 최영애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2023 인문도시주간’ 자문회의에서 올해에는 어린이 창작시집을 발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어린이들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 받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니 그 기념으로 발간하자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져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어린이 창작동시 공모기간이라, 작품이 접수되고 있을 것이다. 곧 마주하게 될 어린이들의 시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설렌다. 수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어린이 창작시집. 다른 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린이가 직접 지은 창작시집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으니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첫 시집이 될 수도 있겠다. 한국문학을 열어 갈 미래의 시인이나 작가들이 이 중에서 나오리라 기대한다.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기념

어린이 창작시집 공모

수원문화재단은 어린이들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 받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 시집 발간>을 위한 어린이 창작 시를 공모 합니다.

공모(접수)기간

2023. 6. 20.(화) ~ 8. 13.(일)

응모 자격

수원시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

주제 분야

자유주제 개인창작 시 1인 1작품 30행 이하

응모 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swchildren100@gmail.com
우편: 수원시 발달구 행정로 11 수원문화재단 1층 문화도시센터
※참가신청서는 문화도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선정 혜택

<어린이 시집> 작품 수록 및 시집 증정 등
※세부 혜택은 문화도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결과 발표

2023년 8월 중순 (예정)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 홈페이지
www.swculture.or.kr에서 확인바랍니다.
<2023 인문도시주간>

●문의: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290-3542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인문도시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해요~ 놓치면 아쉬운 문화 행사 가득한 문화도시 수원의 여름

한눈에 보는 '문화도시 수원 행사'

무더운 여름, 문화도시 수원이 준비한 행사와 함께 더위를 잊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8월의 수원에는 누구나 와서 수원 로컬브랜드의 제품을 손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문화도시 수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행공간까지, 수원의 8월은 문화 행사가 가득합니다.

인문도시 아카이브 - 도시기록단 참여자 모집

수원학교 100년 아카이빙 프로젝트



도시, 학교, 시민의 변천사를 기록하는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의 기록과 지금 살아가는 수원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속 가능한 기록 생태계 형성을 위한 핵심인력을 발굴해 삶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기록을 자원화·자산화하기 위해 도시기록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2023 인문도시 아카이브는 관내 100년 교육을 지낸 초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민이 주체가 돼 도시브랜드 형성과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시아카이빙 활동을 하게 될 '도시 기록단'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

기간 8. 10.(목) ~ 8. 24.(목)
대상 아카이브 관련 교육 및 프로젝트 활동 경험에 있는 수원시민 10여명

수문장x노보텔 수원 팝업스토어



수문장은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의 약칭으로,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문화 창작자의 작품 판로 확장 및 활동 기반 형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다. 디자인 소품, 독립 출판물, 패션잡화, 식품, 제로웨이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 활동과 소비의 연결을 도모한다. 지역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문화 콘텐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수문장은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과 협업하여 호텔 1층 로비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수문장 브랜드 한 곳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매주 주말, 수원의 특색있는 수문장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기간 2023년 8월 ~ 12월 매주 주말(토, 일)
장소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로비

문화도시 동행공간 프로그램



동행공간은 문화도시 수원과 동행하는 공간으로 '15분 문화생활권'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8월부터 10월까지 공간의 특색을 담아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번 호엔 9월부터 시작하는 동행공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마그앤그래
처음 만나는 오페라
일시 9. 5.(화) ~ 10. 3.(화)
매주 화요일 11시~12시30분
장소 마그앤그래
(권선구 세권로 316번길 49, 상가 201호)
내용 책 <오페라의 여인들> 저자이자 성악가인 '지나 오'에게 직접 듣는 오페라의 역사!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문학 작품을 통해 쉽게 알아가 봐요.

낯설여관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 좋은 사진 이야기
일시 9. 1.(금) ~ 9. 22.(금)
매주 금요일 10시~12시
장소 낯설여관
(장안구 영화로71번길 33, 2층)
내용 좋은 사진에 대해 얘기하며,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기록하는 연습을 합니다.
후반부엔 필름 카메라로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기록해 자신만의 사진첩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 장안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달토리창작스튜디오
흠을 빚고 그림을 그린다 - 바람소리와 명상
일시 9. 1.(금) ~ 10. 20.(금)
매주 금요일 19시~20시30분
장소 달토리창작스튜디오
(팔달구 우만동 522-26, 2층)
내용 다기세트와 도자기를 제작하며 명상과 차담

같이공방
비전화 공방 체험하기
일시 9. 1.(금) ~ 10. 20.(금)
매주 금요일 10시30분~12시
장소 같이공방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106호)
내용 업사이클 재료를 활용한 페이퍼 자수, 프랑스 자수 등을 만들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전화 장비를 알아가며 환경보호 실천 메시지를 만듭니다.

광화문서림
공동육아 씨앗심기
일시 9. 5.(화) ~ 10. 17.(화)
매주 화요일 10시30분~13시
장소 광화문서림
(장안구 만석로209번길 33, 1층)
내용 수원에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동육아와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아티스트웨이
아티스트웨이 월요낭독클럽
일시 9. 4.(월) ~ 9. 18.(월)
매주 월요일 20시30분~22시30분
장소 아티스트웨이
(영통구 의의동 1197, e편한세상 제근린생활시설동 1층 105호)
내용 연극 연출가와 함께 드라마 대본을 낭독하며 드라마 속 캐릭터가 되어보아요!

※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간에 사전 문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도시 //

//, 박람회 &

국제 2023 KOREA CITY OF CULTURE EXPO & GLOBAL CONFERENCE

컨퍼런스

// // // 2023

2023.9.7.(목) - 9.10.(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일대

바람을 타고 파도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문화재단(한국문화재단) 후원, 영도구 영도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공동체

《문화도시 수원 참여》 “문화도시, 바람을 타고 파도로” 전국 24개 문화도시가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문화를 통해 이룬 지역 발전 성과 등을 공유하는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법정 문화도시 비전과 핵심 성과를 볼 수 있는 홍보관, 문화도시를 통해 성장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쇼케이스, 네트워킹 간담회, 토크쇼, 다양한 문화공연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열리는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원시 어린이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에서 선보일 본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 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를 위한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 간 2023. 7. 19.(금) ~ 9. 9.(금)
장 소 슬기샘어린이도서관(송죽동), 지혜샘어린이도서관(권선동), 바른샘어린이도서관(매탄동)
접수방법 수원시 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및 현장접수 ※ 접수일자는 프로그램별 상이
문 의 031-247-8773(슬기샘), 031-225-8053(지혜샘), 031-216-8132(바른샘)

수원시미디어센터 공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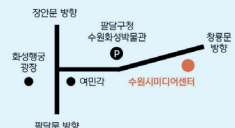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 수원시미디어센터가 한옥으로 새롭게 태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4K 디지털영상기와 7.1채널 서라운드 입체 음향 시스템을 갖춘 96석 상영관을 비롯하여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영상·소리·라디오 스튜디오와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 - 상영관, 영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장비대여실
 2층 - 디지털교육실(window, imac)
 3층 - 회의실, 세미나실

장 소 수원시미디어센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64)
운영사업 수원시네마테크(독립·예술영화 상영, 미디어도서관 운영 등) 미디어교육 및 체험 마을미디어 활성화 시민 콘텐츠 제작지원 및 유통 전문 시설 및 장비 대여



2023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수원화성 성곽길을 따라 화성행궁 궁궐의 야경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달빛화담, 花談’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꽃과 식물들을 모티브로 한 조명 연출 및 전시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여진 화성행궁을 거닐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 간 2023. 5. 3.(수) ~ 10. 29.(일), 18:00 ~ 21:30 ※ 매주 수 ~ 일요일
장 소 수원화성, 화성행궁 일원(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내 용 조선시대 꽃과 식물들을 모티브로 한 조명연출 및 전시콘텐츠 문화관광해설 (빛 따라 고궁산책) 문화예술 공연·지역작가 및 문화예술단체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2023 화서사랑채 주말 체험 프로그램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에서 특별한 전통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3년 화서사랑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화서사랑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국악, 무용 등의 역사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배워보는 체험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옥에서 즐기는 특별한 전통체험에 참여해보세요.

일 시 2023. 8. 12.(토) ~ 2023. 11. 18.(토) 14:00~14:50, 15:00~15:50
장 소 화서사랑채 교육동
접수방법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카드 결제 ※ 체험인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 진행
접수기간 2023. 8. 4.(금) ~ 각 강좌 체험일 1일전 17시까지
문 의 031-247-9806~7(화서사랑채), 031-247-9366(전통사업부 한옥운영팀)



문화도시 수원 인스타그램
 QR 스캔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GO!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문화예술기부 프로젝트 싹ssac은 수원문화재단에서 모금하고 운영하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 ‘기부’로 문화예술관광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ly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OO구 OO동), 휴대폰 번호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